

# ‘착한 소비’ 광주공공배달앱 이용하세요

### 크리스마스·연말연시 맞아

### 1월 13일까지 경품·할인 행사

광주시에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들의 착한 소비를 유도하고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광주시는 “연말연시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경제 활력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1월 13일까지 광주시 공공배달앱(위메프오) 경품·할인 행사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크리스마스와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광주시 공공배달앱(위메프오) 활성화를 유도하고 얼어붙은 지역소비 회복, 지역 소상공인 매출증대 등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크리스마스 행사’는 크리스마스 전날(24일) 주문 고객을 대상으로 20% 페이백과 크리스마스 당일(25일) 2000원 할인을 진행한다.

경품행사는 오는 25일까지 2만원 이상 주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3명을 추첨해 1등 애플워치, 2등 갤럭시 버즈, 3등 공기정정기를 지급한다. ‘연말연시 행사’는 30일부터 1월 6일까지 새해

소원을 광주공공배달앱 공식 인스타그램 내 게시물에 댓글로 참여하면 30명을 선정해 배달 앱 이용권(1만원권, 5000원권)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1월 9일부터 13일까지는 겨울방학을 맞이한 학생, 직장인을 위해 점심시간(오전 10~오후 2시) 2000원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박정환 광주시 경제창업실장은 “올해 광주공공배달앱을 이용해주시는 시민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광주공공배달앱으로 착한소비를 하며 따뜻한 연말연시를 맞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 광주환경공단, 정보취약계층에 PC 등 기증

광주환경공단은 “비영리단체 광주장애인정보화협회에 정보격차 해소와 자원 재순환을 위해 불용 전산장비 140여 대를 ‘사랑의 PC’로 기증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외 모니터 41대, 프린터 3대 등 총 140여 대로, 정비 및 재조립을 거쳐 장애인 재취업을 위한 교육용 PC로 활용되거나 취약계층에 전달돼 정보화 능력 향상에 활용될 예정이다.

‘사랑의 PC’는 단체, 기관 등에서 사용하지 않는 중고 컴퓨터를 기증받아 성능을 향상시킨 뒤 정보화 소외계층인 저소득층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중고PC를 무상 보급하는 운동이다. 장애인정보화협회에 기증된 전산장비는 PC 98

김성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은 “정보화 격차도 줄이고 자원 재순환에도 기여할 수 있는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PC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잠들지 않는 감시자’ 광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 절도 등 범인 검거 719건

### 사건·사고 예방 4830여 건 실적

#1. 지난 11월 6일 오전 10시께 광주에서 마약 판매 수배 차량의 긴급 지령이 내려졌다. 광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원이 실시간 추적 관제를 유지하는 중 인근 모텔로 차량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과 119가 현장 주변을 조사해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부로 침입해 상해를 입힌 뒤 현금을 들고 도망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통합관제센터는 현장 주변 CCTV 관제 중 강도가 타고 온 오토바이를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관제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범인을 검거에 성공했다.

용, 차량번호 인식용 등 총 9600여대의 CCTV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89명의 관제원이 5개조 3교대로 연중무휴 24시간 관제를 통해 빈틈없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개소 이래 강력범 검거·절도 등 범인 검거 719건, 응급환자, 재난재해, 교통사고를 비롯한 사건·사고 예방 활동 4830여 건의 실적을 거뒀다.

광주시 CCTV통합관제센터가 각종 범죄와 사건·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잠들지 않는 감시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또 경찰·소방·재난상황실 등 유관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각종 사건·사고 예방하고 강력 범죄를 근절하는 등 ‘안심도시 광주’ 구현에도 앞장서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5월 문을 연 CCTV통합관제센터는 방범용, 어린이 보호

###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카드

### 12월 31일까지 꼭 사용하세요

광주시는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덜고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지급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카드를 오는 31일까지 꼭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시는 지난 6월 29일부터 8월 19일까지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 총 6만8000여 가구에 317억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지난 8일 기준 긴급생활지원금 카드 지급액 대비 이용액 비율은 97%로, 카드 수령가구 중 일부 가구는 아직까지 미사용 잔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긴급생활지원금은 광주 내에서 유희·향락·사행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형 마트 등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으며, 31일 이후 미사용한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카드수령가구에 문자 발송, 전화 안내 등을 통해 지원금 잔액을 연달까지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손속수 광주시 복지정책과장은 “선불카드 사용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아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시민은 기한 내 꼭 사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도시공사, 고려인마을 화재예방 돕는다

### 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광주도시공사는 “최근 고려인마을종합지원센터와 상호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은 화재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과 우호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소방안전 용품 등 제공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교육활동 ▲고려인동포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호교류 ▲고려방송 활용한 공

사 봉사활동 홍보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협력사항 등을 수행하기로 했다. 앞서 도시공사는 자체 인력을 활용해 고려인마을 쉼터, 어린이집, 외국인 근로자 임시거처 등에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소방안전 용품 등을 설치·지원한 바 있다.

광주도시공사 정민근 사장은 “공사에선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광주 대표기업으로서 광주 시민의 행복과 따뜻한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지방물가관리 평가 우수기관 선정

### 특별교부세 2억5000만원 확보

광주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2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특별광역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고물가 상환 극복을 위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한 추진 노력 등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상황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점검·발표했다.

올해는 정량실적(지방공공요금 동결·감면 등)과 정성실적(물가안정 분위기 조성 등 노력도) 등 총 20개의 평가지표가 활용됐으며, 1~10월까지 실적을 4개 그룹(특·광역시, 도, 자치구, 시·군)으로 구분해 평가를 진행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기록했는데도, 지방공공요금(7종) 동결하거나 내년 이후로 인상시기를 조정해 지방공공요금 물가상승률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착한가격업소 지원 분야에서 착한가격업소 물품 지원, 상·하수도 요금보조 등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업소당 연평균 36만원을 지원해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를 이끌기도 했다.

특히 광주시를 포함한 5개 자치구 모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해 지원 규모와 시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 분야에서는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치구, 소비자 보호단체와 협력해 물가조사와 가격표시제 등 홍보활동 36회, 간담회 12회를 실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 광주도시철도공사 서비스 마케터 30명 모집

광주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 이용 증진 불편이나 개선사항, 아이디어 등을 수렴하기 위한 서비스 마케터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사 서비스 마케터는 평소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시민 눈높이에서 느낀 다양한 건의 사항이나 개선점 등을 공사에 전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16세 이상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20일까지다. 모집인원은 30명이며, 활동기간은 내년 1년간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든든한 지킴이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